

풍수로 본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친화성

- 도니피, 안메일, 사일마을을 대상으로 -

김 병 주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이 상 해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풍수, 삶의 자리, 전통마을, 생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풍수를 이용하여 한국 전통마을을 생태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인간이 무리지어 사는 곳은 계획된 질서와 의도를 가지고 조성되기 마련이다. 일견 무질서해 보이고 자유분방하게 조성된 듯 보이는 전통마을에는 생태적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연구는 출발한다.

한국의 독특한 자연조건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자연관을 배경으로 한국인들은 살기 좋은 마을 터를 잡는 기준을 만들어 왔다. 풍수는 자연생태 질서를 관찰하는 바람과 물의 이론으로 여기에 커다란 지침으로 작용하였다. 인간의 삶의 자리와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또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 이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 생태학의 주요 관심사이며,¹⁾ 동시에 풍수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²⁾

전통적으로 인간의 문화는 지역적 적응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특정한 삶의 자리에서 자연조건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적응을 바탕으로 생태계에 변형을 가하더라도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땅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합리적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³⁾ 이는 오늘날의 지속가능성과 에콜로지라는 단어의 상징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전통적인 생태의 가치이다. 본 연구는 이를 전통마을에 나타나는 '생태적 환경친화성'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풍수를 이용하여 한국의 전통마을을 생태적으로 해석하는 본 연구의 시도는 옛 것을 오늘에 돌이켜 봄으로써 우리 삶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며, 풍수와 전통마을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이

1) D. I. Stanley, 노태호 외 옮김, 인간과 자연,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2000.), p.2.

2) 윤홍기,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

회지 제36권 제4호, 2001.), p.347.

3) H. Norberg-Hodge, 김종철·김태연 옮김,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1996.), p.11.

루어졌다. 『청오경(靑烏經)』, 『금낭경(錦囊經)』, 『지리신법(地理新法)』, 『명산론(明山論)』 등 조선시대 주요 풍수서⁴⁾의 내용을 풍수이론의 근거로 삼았다.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마을 입지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산경표(山經表)』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산수체계를 이용하였다.

현장조사 대상으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니피마을과 안메일마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사일마을을 선정하였다. 도니피마을은 영월읍씨 세거지이고, 입향조는 1519년 기묘사화로 퇴거한 남당(南塘) 엄용순(嚴用順)이다. 안메일마을은 풍천 입씨 세거지로 기묘사화 당시 퇴거한 어은(漁隱) 임내신(壬廩臣)이 입향조이며, 풍수사 박상의(朴相儀)가 점지한 마을 자리이다. 사일마을은 19세기 초부터 달성 서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마을이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가 늦은 사일마을은 풍수이론이 시대상황과 지세형편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도니피마을에서는 하나의 유역 안에서 물을 나누어 쓰면서 주거지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안메일마을은 마을 입구의 띠 모양 느티나무 숲이 특징이다. 3개 마을은 서로 다른 마을이 갖고 있지 않은 각각의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설명하는 내용과 주장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 풍수의 생태적 이해

풍수의 생태적 이해를 위하여 기존 풍수이론을 형이상학적 사상체계와 형이하학적 입지이론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전자는 풍수의 자연관, 후자는 그러한 자연관을 바탕으로 하

는 풍수의 현실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풍수는 풍수, 풍수사상, 풍수지리,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사상 등 다양하게 불리어져 왔다. 본 연구는 풍수의 형이상학적 체계를 ‘풍수사상’, 형이하학적 입지이론을 ‘풍수지리’라 하고,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풍수’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려 한다. 풍수사상은 생태적 환경철학과 통하고, 풍수지리는 생태적 환경계획과 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풍수사상과 환경철학

『금낭경』 「기감(氣感)」편의 내용을 토대로 풍수의 자연관을 살펴본다. 풍수의 본질이 생기와 감응에 있음은 끊임없이 강조되어온 내용이다.⁵⁾ 본 연구는 생기가 순환한다는 「기감」편의 내용을 생기와 감응의 연결고리로 엮어 생기론, 순환론, 감응론의 연결된 체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생기론이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고전은 내용의 핵심을 제일 첫 문장에 둔다. 『금낭경』 첫 문장은 “장사를 지낸다는 것은 생기를 타는 것이다”이다.⁶⁾ 주해자(註解者) 장설(張設)은 이를 “만물의 생겨남은 땅속의 것에 힘입지 않은 것이 없다. 그것은 땅속에 생기가 있는 까닭이다”로 풀이하였다.⁷⁾ 풍수에서 생기는 만물생성의 근원이자, 풍수의 이론체계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출발점이다.

둘째, 순환론이다. 『금낭경』에서 생기의 순환에 대해 설명하기를, “무릇 음양의 기는 내뿜으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내려오면 비가 되며 비가 땅속으로 돌아다니면 생기가 된다”고 하였다.⁸⁾ 오늘

5) 村山智順, 정현우 옮김, 한국의 풍수 (명문당, 1991.), p.38.

6) 『錦囊經』 「氣感」; “葬者乘生氣也.”

7) “萬物之所生 無著於地中者 以地中有生氣故也.”

8) 『錦囊經』 「氣感」; “夫陰陽之氣 噫而爲風 升而爲雲

4) 이상태, 「조선초기의 풍수지리사상」(사학연구 제39호, 한국사학회, 1987.), p.201.

날 물의 순환이론과 비슷한 자연관이다.⁹⁾ 풍수는 땅 속에 생기가 머무는 과정을 거의 순환으로 설명한다.

셋째, 감응론이다. 자연과 인간은 순환하는 생기를 매개로 서로 감응한다. 『금낭경』에는 “기감이응(氣感而應)”이라 하여 “감에 대한 응”, 또는 “감한 후에 생기는 응”을 설명한 내용이 있다. 감은 온몸으로 체득된 느낌이다. 그에 따라 몸이 응한다. 감과 응의 결과는 인간 체험의 모든 것으로,¹⁰⁾ 인간과 자연의 간극 없는 직접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¹¹⁾ 인간과 자연의 감응은 천인관계, 천인상통, 천인합일의 뜻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¹²⁾

생기가 자연 속에서 순환하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에는 생기가 모여 있으며, 그것이 인간과 감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풍수의 환경인식이다. 생기론, 순환론, 감응론으로 요약되는 풍수의 자연관은 총체적 유기체 속의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 착취할 수 없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풍수는 자연 생태계 속 인간의 주체적 역할과 지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¹³⁾ 오늘날 심층 생태주의(deep ecology)와도 구별된다.¹⁴⁾ 이와 같은 풍

수의 논리는 생태적 환경철학의 동아시아적 표현으로 그 의미가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2-2. 풍수지리와 환경계획

이중환과 홍만선은 각각 『택리지』 「복거총론」과 『산림경제』에서 마을 입지선정에 앞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지리(地理)”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마을 터 잡기에 앞서 땅의 이치와 자연생태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생각은 주변 자연에 상응하는 마을 배치를 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마을은 자연과 조화하는 건축공간을 담게 되었다.¹⁵⁾

풍수의 주요 관찰대상은 바람(風)과 물(水)의 흐름으로 대변되는 자연생태의 질서이고, 일관된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공간적 관계이다. 풍수는 언제나 혈과 명당, 그를 둘러싼 주변 자연환경의 관계를 강조하는데,¹⁶⁾ 이러한 풍수의 논리는 건축을 주변 자연과 연계시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혈과 명당을 둘러싼 주변 형국은 배산임수, 장풍득수의 조건으로 표현된다. 배산임수와 장풍득수의 생태환경은 생기의 취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조건도 동시에 갖추고 있다.¹⁷⁾ 이처럼 풍수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면서도 추상적인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석 및 현실적 이용을 도모하였다는 점에 그 독특성이 있다.

降而爲雨 行乎地中 則爲生氣.”

9) 윤홍기, 「풍수지리의 환경사상」(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p.60.

10) 김성우, 「시각과 감응: 동서양 건축에서 경험의 문제」(건축역사연구 제13권 제4호, 2004. 12.), p.45.

11)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6.), p.311.

12) 張堃年, 김백희 옮김, 중국철학대강 (까치, 1998.), p.359.

13) 「錦囊經」 「氣感」; “禍福不旋日 是以君子 奪神工改天命.”

14) 심층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물을 평등한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 심층 생태주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민희, 「환경윤리와 자연의 가치」(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제5장을 참조할 것.

15) 이상해, 「한국전통건축의 환경친화적 건축관」(동양예술 제8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4. 5.), p.301.

16) 「靑鳥經」; “山隨水著 迢迢來路 挹而注之 穴須回顧.”

17) 배산임수와 장풍득수의 생태환경에 대해서는 尚廓, 「中国风水格局的构成、生态环境与景观」(风水理论研究, 天津大学出版社, 1992.), p.28. 및 R. T. T. Forman, 홍선기·김동엽 옮김, 토지모자이크: 지역 및 경관생태학(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p.17.의 내용을 각각 참조할 것.

3. 한국 전통마을의 생태적 환경친화성

전통사회에서 산과 물은 일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는 하나의 체계로 인식되었으며, 산수의 이치를 따져 삶의 자리를 선택하였다.¹⁸⁾ 사례 대상마을인 도니피, 안메일, 사일마을의 입지, 토지이용 및 녹지체계를 산줄기와 물줄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1. 산줄기와 마을

(1) 산줄기와 입지의 관계

『산경표』,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체계에 의하면, 도니피마을과 안메일마을 주산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한남정맥 지맥(支脈)이고, 사일마을 주산 뒤편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는 낙동정맥 지맥이다. 마을로 들어오는 산줄기의 흐름을 살피는 것을 풍수 용어로는 “간룡(看龍)”이라 한다. 산줄기가 그치는 곳은 풍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산줄기가 그치는 곳에 생기가 모이고, 혈이 맺히기 때문이다. 『금낭경』에서 “생기의 모임은 세의 그침에 있다”, “그치는 곳에 의지해야 한다”고 한 것은 산줄기의 그침을 강조한 대목이다.¹⁹⁾ 『청오경』, 『지리신법』, 『명산론』에서도 산줄기 그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²⁰⁾ 본 연구에서는 산줄기와 마을 입지의 관계를 ‘산줄기가 그치는 곳’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도록 한다.

“그친다(止)”는 것은 흐름을 강제로 막거나 끊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자리를 찾아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²¹⁾ 풍수서에서 산줄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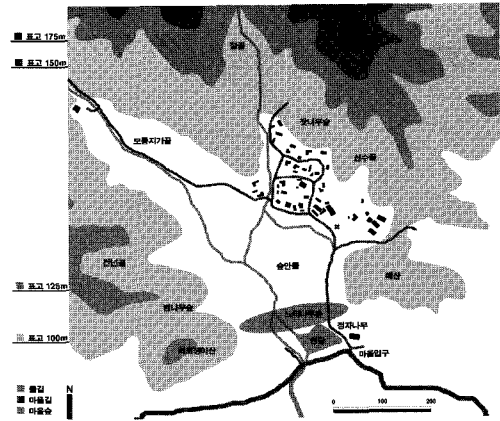


그림 1. 안메일마을 배치도

그침을 “止”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산줄기가 나아가다 그치는 곳은 연이은 봉우리가 그 흐름을 다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지와 평야의 접촉지점이 된다. 또 스스로 자기자리를 찾아 그친다는 것은 산지와 평야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은 산과 물줄기를 중심으로 그린 안메일마을이다. 주변 산세의 해발고도를 175m에서 100m까지, 25m간격으로 표현하였다. 주산으로부터 경작지인 숲안들까지 산지와 평야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지형변환지대는 이질적 자연요소가 서로 만나는 자리이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점이대(漸移帶, ecotone)로 정의하는데, 점이대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며,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과 경작의 요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²²⁾ 산줄기가 그치는 곳의 마을 입지에서 산지와 평야에서 취할 수 있는 각각의 이로움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 입지선정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2) 산줄기와 토지이용의 관계

21)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둘베개, 1999.), pp.349~355.

22) E. P. Odum, 이도원 외 옮김, 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1.), pp.71~83.

18) 이원교, 「전통건축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p.1.

19) 『錦囊經』 「因勢」; “其聚也 因勢之止.”, “原其起 乘其止.”

20) 『靑鳥經』; “勢止 龍之住也.”, 『地理新法』(券下): “地必欲審其來 乘其止.”, 『明山論』 「二氣」: “其氣爲未止…其氣爲未應.”

산이 많은 한국 지형조건에서 산록완사면은 전국적인 분포를 보인다. 한국 산록완사면이 갖는 특징은 경사변환점의 존재이다.²³⁾ 산줄기가 그치는 곳에 자리한 마을의 지형단면은 급경사면-완경사면-평지면으로 이루어지고, 경사변환점은 배후지-주거지-경작지로 이어지는 토지이용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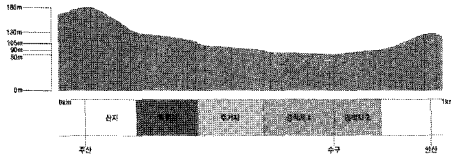


그림 2. 안메일마을 지형단면도

주산에서부터 배후지-주거지-경작지-안산의 축을 기준으로 보면, 안메일마을 지형 단면은 그림 2와 같다. 산줄기가 그치는 곳, 즉 산지와 평야가 만나는 점이대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토지이용이 가능하였다. 배후지의 경사녹지는 겨울철 찬바람으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해주며, 산지와 주거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경작지는 산지-배후지-주거지의 완만한 경사를 타고 내린 유기질 토양입자로 인해 비옥도가 유지되어 문전옥답을 이룬다. 주거지 전후의 경사변환점은 주거지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3-2. 물줄기와 마을

(1) 물줄기와 입지의 관계

집중호우와 한발이 주기적으로 교차하는 한국의 강수량 조건에서 유수량(流水量)의 조절은 물줄기를 고려한 마을 입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마을은 물을 구하기 쉬우면서도 침수 위험이 적은 곳에 입지해야 했다. 본 연구는 이를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23) 장재훈, 「한국 산록완사면의 기후 지형학적 고찰」(지리학회지, 국토지리학회, 1997.), p.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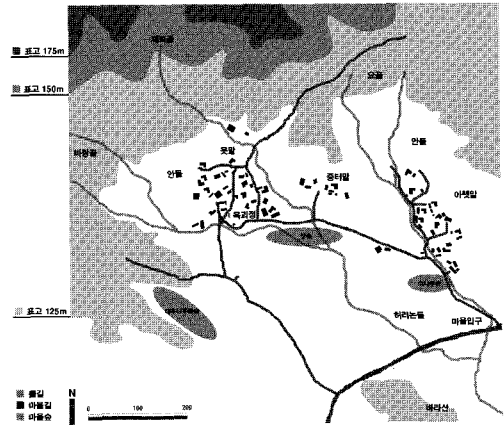


그림 3. 도니피마을 배치도

<그림 3> 도니피마을에서 산줄기가 그치는 곳에 물줄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산 골짜기 바람골, 재피골, 요골의 물줄기가 마을 안을 흐르고, 마을은 분수계(分水界)를 경계로 일정한 범위의 유역(流域)을 점유하고 있다. 유역이란 강, 지류를 포함하는 수계들로 배수가 이루어지는 지역과 지역을 둘러싼 땅을 말하는 것으로,²⁴⁾ 장풍득수 조건을 갖춘 마을은 하나의 작은 유역을 형성한다.

마을에서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물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니피마을과 같이 뒷산에서 접수된 물이다.²⁵⁾ 배후산지에서 발원하여 마을 안으로 모이는 물은 다른 유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에 비해 홍수 및 갈수의 위험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도 높아 우물을 파기도 쉽다.²⁶⁾

마을 안의 주거지 좌우를 지나 경작지를 가로질러 흐르는 실개천을 풍수에서는 명당수(明堂水·內水)라고 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큰 하천은 객수(客水·外水)라 한다. 『지리신

24) 이도원·신준환·강신규, 「백두대간 체계 안에 내포된 유역 개념과 문제점」(한국생태학회지 제26권 제4호, 2003.), p.215.

25) 장재훈, 「한국 촌락 입지에 관한 지형학적 고찰」(응용지리 제13호, 1999. 12.), pp.141~142.

26) 오홍석, 취락지리학(교학연구사, 1989.), pp.286~289.

법』은 명당수와 객수를 이렇게 구분한다.²⁷⁾

무릇 산천은 못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나만이 홀로 갖는 것이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무덤이나 집이 있을 때, 그 바깥에 있는 먼 산이나 멀리 흐르는 물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같이 보고 같이 사용한다. 이것이 바로 못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 못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못 사람의 산이 되며, 그곳의 물은 못 산의 혈액이다. 나 홀로 갖는 것은 나의 산이 되며, 그 곳의 물은 내 산의 혈액이다.

객수는 안산 너머 마을 밖을 멀리 감돌아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마을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나 가뭄이 들었을 때, 객수는 꼭 필요했을 것이다. 도니피마에서는 주산 골짜기의 실개천이 명당수가 되고, 안산 너머에서 명당수와 합수하여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은 객수가 된다.

분수계를 경계로 가뭄과 홍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물을 명당수로 삼아 주거지 가까운 곳에 두고, 외부에서 발원하여 유수량의 조절이 쉽지 않은 물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명당수와 객수의 설정에서 물줄기의 위계를 이해하고 마을 입지선정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물줄기와 녹지의 관계

마을 녹지는 상징적 기능과 현실적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금낭경』에 의하면, “생기는 음양이 충화하고, 초목이 울창하고 무성해야 있는 법”이라 하였다.²⁸⁾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을녹지는 물의 사용과 깊은 관계에 있으며, 주로 물이 마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에 위치한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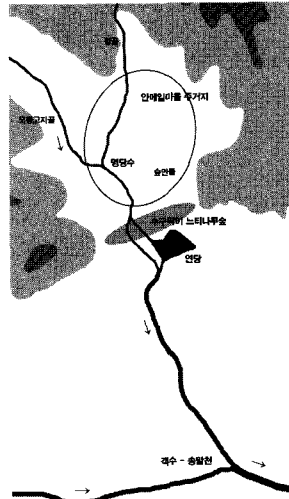


그림 4. 안메일마을 수구막이

것도 이와 관련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마을 배후지는 명당수가 발원하는 상수원이 다. 배후지의 녹지는 용맥비보(龍脈裨補)라 하여 숲을 조성해 생기를 북돋는다는 상징성을 갖는다.³¹⁾ 배후지 녹지에서 물이 한 단계 걸러지고 영양소 오염이 방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안메일마을에서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 수구에 느티나무로 수구막이 숲을 조성하였다. 수구막이는 마을 지기(地氣)의 누설을 막는다는 상징적 기능과 함께, 마을 밖을 빠져나가는 물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에 의한 물의 이용과 생태환경의 보전이라는 이원적 목표는 풍수라는 동일한 계획개념으로 마을에서 실현되고 있다.

3-3. 산수유정(山水有情)과 마을

배산임수와 장풍득수의 조건은 ‘산줄기가 그

p.16.

30)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p.117.

31)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민속원, 2004.), pp.50~51.

27) 『地理新法』 「放水」; “大抵山川 有衆所同者 有我獨者 如人墳宅 其外遠山遠水 人皆見之 亦皆用之 此衆所同者也...衆所同者 爲衆山水 則衆山之血脈也 我所獨者 爲我山水 則我山之血脈也.”

28) 『錦囊經』 「山勢」; “冲陽和陰 鬱草茂林 乃有生氣.”

29) R. T. T. Forman, 홍선기·김동엽 옮김, 앞의 책, 건축역사연구 제15권 2호 통권46호 2006년 6월

치는 곳,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설명할 수 있다.³²⁾ 산과 물에 의해 한정되는 영역은 마을의 생활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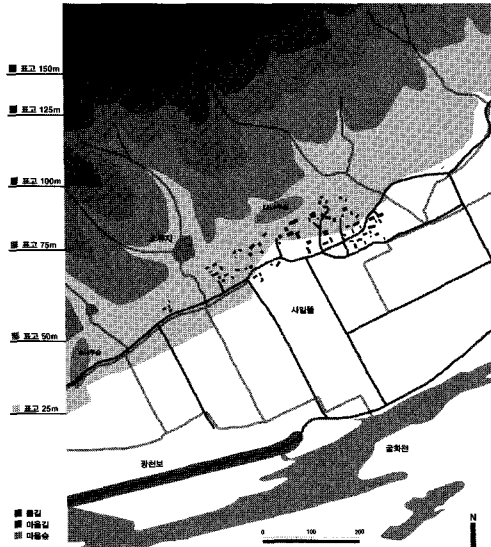


그림 5. 사일마을 배치도

사일마을은 도니피, 안메일마을과는 다른 입지조건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우 산줄기로 위요된 두 마을에 비해 사일마을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둘째, 경작지가 광활하다. 마을 전면 사일뜰, 그 우측에 입암뜰, 좌측에 곡연뜰이 있다. 셋째, 저지대에 입지하고 있다. 주거지 해발고도 25m, 경작지 15m전후이다. 넷째, 외부에서 유입된 태화강 상류 굴화천이 경작지 바로 앞을 흐른다.

입향조를 기준으로 보면, 도니피와 안메일마을의 역사는 기묘사화 직후 16세기 초부터 시작된다. 사일마을은 19세기 초 달성 서씨가 들어와 살기 시작한 마을로, 향촌 지배세력 변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³³⁾ 조선후기 마을로 구

분할 수 있다.

경작지의 저지대 확산과 입지변화는 조선후기 마을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기이후 독과 제방, 저수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경작지가 저지대로 확산되며 사족(士族)마을은 주변 자연마을(村, 谷, 亭, 坪)을 통할한다.³⁴⁾ 사일마을의 사일뜰, 입암뜰, 곡연뜰 주변에는 관서정(觀逝亭), 넓내[廣川坪], 대방골[大方谷] 등의 자연마을이 있고, 굴화천의 범람으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는 제방[廣川淤]이 있다.³⁵⁾ 사일마을이 저지대 퇴적평단면을 개간하여 광활한 경작지로 삼은 것은 성리학적 이념과 격식보다는 경제적 부의 축적에 무게를 두는 당시의 시대적 성향을 받아들인 것이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력의 향상과 독, 제방, 저수지의 축조는 이러한 입지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사일마을은 울산의 대표적 풍수 길지로 꼽힌다. 낙동정맥 지맥인 무학산이 진행을 그치고 굴화천이 돌아나가는 사이에 마을은 입지하고 있으며, 큰 형국으로 보면 무학산-옥녀봉-입화산-영취산-문수산이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어,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는 풍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³⁶⁾ 『청오경』에서는 “산은 조아리고 물은 굽어 흐른다”고 하였는데,³⁷⁾ 굴화천의 굴화(屈火)는 “굽은 냇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³⁸⁾

산수유정(山水有情)은 풍수의 가장 중요한

33) 진봉희, 「조선시대 씨족마을의 내재적 질서와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25.

34)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p.45.

35)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울주군지(下권, 2002.), p.1043.

36) 『錦囊經』 「氣感」; “氣乘風則散 界水聚止.”

37) 『靑鳥經』; “山頓水曲.”

38) 이유수, 울산지명사(울산문화원, 1986.), pp.486~489.

32) 김병주·이상해, 「대동여지도를 통해 본 조선시대 씨족마을 입지환경」(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제1호, 2006. 1.), pp.155~167.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와 물줄기 체계를 이용하여, 조선시대 81개 씨족마을의 입지를 “산줄기가 그치는 곳,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설명하였다.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물 앞에서 산이 급경사를 이루며 멈추거나 물이 빠르게 직류(直流)하는 것은 곧 산수무정(山水無情)이다.³⁹⁾ 산은 조용히 나아감을 멈추고, 물은 그 앞을 유유히 흘러야한다. 무학산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마을 뒤에서 그치고, 굴화천이 굽어 흐르면서 마을을 감싸 돌아나가는 사일마을의 형국은 산수유정의 좋은 예이다.

풍수이론의 적용은 시대상황과 지세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적용의 유연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은 공유하나 구체적 대상에 따라 풍수의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산수유정 의미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

4. 결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은 어떤 장소에서나 집을 짓고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연계의 생물종들이 저마다 적합한 서식처를 갖고 있듯이, 생태학적 인간에게도 생명의 유지와 활동에 적합한 삶의 자리가 있다.

본 연구는 풍수와 한국 전통마을을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였고, 전통적 삶의 자리를 ‘산줄기가 그치고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자리는 마을의 입지환경, 토지이용, 녹지체계, 나아가 경관연출, 공간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도니피마을, 안매일마을, 사일마을과 주변 자연조건의 관계를 풍수를 통하여 살펴본 작업은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생태에 대한 논의를 전통적 가치에서부터 풀어보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풍수와 한국의 전통마을은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尙廓, 「中國風水格局의構成、生態環境與景觀」, 風水理論研究, 天津大學出版社, 1992.
2. 村山智順, 정현우 옮김, 한국의 풍수, 명문당, 1991.
3. D. I. Stanley, 노태호 외 옮김, 인간과 자연,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2002.
4. H. Norberg-Hodge, 김종철·김태언 옮김, 오래된 미래, 녹색평론사, 1996.
5. R. T. T. Forman, 홍선기·김동엽 옮김, 토지모자이크: 지역 및 경관생태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0.
6. 김성우, 「시각과 감응」, 건축역사연구 제 13권 제4호, 2004. 12.
7.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8. 윤흥기, 「풍수지리의 환경사상」, 한국의 전통생태학, 사이언스북스, 2004.
9. 이해준,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1996.

39) 『雪心賦』: “後山不宜壁立 去水最怕直流.”